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09.14 (통권365호)



경제이슈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제시

기준금리 3.25%로 동결

경영노트

녹색 기술 투자의 10가지 유의 사항

사회 트렌드

국가경쟁력 4년 연속 추락

한국 대졸자 비율 OECD 1위

저널 브리프

잡스의 10원칙

洗心錄

양떼효과(herding effect)

□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제시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의회 합동연설에서 4,470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을 제시
 - 일자리 법안 제시 :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를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4,47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을 제시
 - 근로소득세 인하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고용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소득세를 3.1%로 인하하고 실직자에 대한 실업수당도 연장하기로 발표
 - 공공지출 확대 : 일자리법안 이외에도 학교시설 현대화, 교통인프라 구축 등 공공지출에 1,0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
- 미국 정부가 제시한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향후 경기회복세가 기대되나, 미국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

□ 기준금리 3.25%로 동결

-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전월과 같은 연 3.25%로 유지하기로 결정
 - 해외요인 : 대외여건이 주요 선진국 경기의 부진,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불안
 - 국내요인 : 8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5.3%, 6.6%로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부실 문제 등이 금리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
 - 기준금리 추이 : 2009년 2월 2.0%에서 2010년 7월, 11월 2011년 1월, 3월, 6월에 0.25%p씩 총 다섯 차례 인상으로 현재 3.25%를 유지
- 한국은행의 금리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외 경기여건 악화로 인한 국내경기 하강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기준금리의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녹색 기술 투자의 10가지 유의 사항¹⁾

- 녹색 기술은 일시적인 이슈의 수준을 넘어 많은 기업들의 투자 대상이 되었지만 아직은 투자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님
 - 녹색 기술은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기술로 정의될 수 있으며, 빠른 성장이 예상되지만 리스크가 큰 투자처 중 하나임
- 녹색 기술은 매력적인 신사업이지만 사업 진출과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 나타냈다 성장했거나 사라져간 신사업들로부터의 교훈을 숙지해야 함

< 녹색 기술 투자의 10가지 유의 사항 >

구분	내용
투자 타이밍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늦은 시장 진입으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나 선점이 만능은 아님 • 바이오, IT 등의 산업 초기에는 수많은 기업이 등장했지만 이후 산업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현재까지 생존한 기업은 20%에 불과
느린 변화 속도에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기회에 이해에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현실의 직시까지 포함 • 형광등은 에너지효율과 경제성에도 美 조명시장의 점유율은 11%에 불과
국제 협력 관계에 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녹색 기술의 새로운 시장은 국제 협력 관계의 영향을 받아 형성 • 프레온가스의 오존층 파괴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고 제품 규제 및 대체재 개발을 견인한 것은 일부 국가나 기업이 아닌 몬트리올 의정서임
혁신의 다양성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기술에서의 혁신은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숙지 •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수즈론 에너지는 토지 공급, 발전, 전력 연결, 컨설팅 등 풍력 발전 관련 서비스 전체를 제공하며 세계 3위 업체로 성장
불확실성에 대한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시장일수록 기존 경험을 통한 예측이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함 • 태양전지 업체 규셀은 예측의 불가능 인정하고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
경쟁자 동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신기술 산업의 경쟁 업체는 물론 대체 기술에 대한 파악이 중요 • 현재 태양전지는 실리콘전지 중심이나 이를 대체할 기술 개발 역시 활발
융합의 중요성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시장 형성은 기존 기술 간 교차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가속화 •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의료, 농업, 에너지, 전자 등 다양한 산업들이 융합 및 응용되어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
협업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기술 개발, 생산, 중개는 물론 투자 역시 리스크 분산을 위한 협업이 필요
기술 활용의 주변부에 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은 주변부에 적용된 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 이미 LED는 신호등, 자동차 램프 등에 사용되었으나 휴대전화, TV를 통해 존재가 널리 알려졌으며, 현재 조명 시장으로 서서히 이동 중
경영의사 결정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과 성과,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달성 사이에서의 균형이 필요 • 신기술의 불확실성은 한 쪽에 치우친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듦

1) 본 자료는 ‘Innovating in Uncertain Market: 10 Lessons for Green Technologies (Sloan Management Review, 2011. 7)’를 요약 정리함

□ 국가경쟁력 4년 연속 추락²⁾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년 연속 하락
 -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2008년 13위, 2009년 19위, 지난해 22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24위를 기록
 - 정치와 행정이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걸 교육과 기업이 그나마 급락을 막아주는 모양새
 -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거의 세계 꼴찌 수준
-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
 - 싱가포르를 1단계 올라 2위를 차지했고, 스웨덴과 미국이 한 단계 밀려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 핀란드가 작년 7위에서 4위로 도약
 -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 9위(작년 6위), 홍콩은 11위(11위), 중국은 26위(27위)를 차지

□ 한국 대졸자 비율 OECD 1위³⁾

- 25~34세 국민의 고교·대학 졸업자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쌌고, 정부가 내는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 이하였음
 - (고등학교 졸업자) 25세~34세 인구의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한국(98%), 슬로바키아(95%), 체코(94%)의 순
 - (전문대 이상 졸업자) 한국(63%), 캐나다·일본(56%), 아일랜드(48%) 順
 - (청년취업자 10만 명당 이공계 대학 졸업자 수) 한국(3555명), 뉴질랜드(2987명), 프랑스(2717명), 핀란드(2384명)의 순
 - (국공립대학·대학원 연평균 등록금) 미국(6312달러), 한국(5316달러), 영국(4840달러), 일본(4602달러)의 順
 - (학업성취도)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학업성취도 높은 학생 비율은 한국(14%), 핀란드(11.4%), 일본·터키(10.5%)의 순(평균 7.7%)

2) “국가경쟁력 4년 연속 추락, 정치 후진성 뼈아픈 성적표”, 헤럴드경제, 2011.9.8.

3) “한국 대졸자 비율 OECD 1위”, 중앙일보, 2011.9.14.

□ 잡스의 10원칙⁴⁾

■ 최근 사임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은 기업들에게 기업 관리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① **완벽을 추구하라** : 잡스는 첫 아이팟 소개를 앞두고 아이팟의 액세서리인 헤드폰 잭까지 챙겼을 정도로 디테일을 중시함
- ② **전문가를 영입하라** : 잡스는 기업 로고 디자인은 건축설계가에게, 애플스토어의 설립은 소매 대기업의 전직 CEO에게 맡기는 등, 전문가에 높은 신뢰를 보였음
- ③ **미련을 버려라** : 잡스는 진행 중인 연구라도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파기, 개발자들이 새로운 제품 개발에 매진하도록 격려함
- ④ **포커스그룹을 피하라** : 잡스는 포커스그룹을 불신, “소비자는 제품을 실제로 보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명언을 남김
- ⑤ **끊임없이 공부하라** : 애플의 초기 사용 안내서를 만들면서 소니(SONY) 안내서의 서체, 디자인, 종이 무게 등을 철저히 연구한 것으로 알려짐
- ⑥ **단순화하라** : 잡스는 아이팟 초기 원형을 제작하면서 디자이너들에게 모든 버튼을 없애라고 지시, 결과적으로 멋진 스크롤 휠을 개발해냄
- ⑦ **비밀을 유지하라** : 애플이 매우 엄격한 비밀 유지 정책을 유지, 신제품 발표회에서 깜짝 쇼로 전세계 소비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음
- ⑧ **팀을 소규모로 꾸려라** : 잡스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의 수가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가급적 소규모의 팀을 운영하였음
- ⑨ **채찍보다 당근** : 카리스마가 강한 이미지와 달리, 잡스는 평소 직원들을 ‘열성적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⑩ **원형 제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하드웨어부터 애플스토어까지 잡스가 내놓은 모든 제품은 수많은 원형 제작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소비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음

4) 「스티브 잡스의 10계명」(Newsweek, 2011.9.7) 참조

□ 양떼효과(hearding effect)

옆 그림을 보고 아래 질문에 답해보세요. ‘왼쪽의 선과 같은 길이의 것은 A, B, C 중 어느 것일까요?’ 아마 모두가 틀리지 않고 정답 A라고 말했을 것이다.



사회학자인 솔로몬 애쉬(Solomon Ash)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18가지 준비해서 한 문제당 여러 학생이 답하는 실험을 구성하였다. 실험 대상이 된 학생들 중에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여러 명 미리 집어넣었는데, 이들에게 먼저 질문하면서 대신에 18문제 중 12문제를 고의로 틀리게 답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맨 마지막에 실험 대상자인 학생에게 자신의 답을 말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보통 상황에는 거의 100% 정답을 말했던 것이, 무려 36.8%가 틀린 답을 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집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집단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안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을 “양떼효과”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면 불티나게 팔리고, 빨간 신호등이지만 여러 명이 무단 횡단하면 따라 하는 등등 양떼효과는 주변에서 많이 목격한다.

아무 생각없이 집단에 동조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요즘 같이 대량의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스마트 세상으로 인해 개인의 자그마한 행위라도 금방 이슈화되고 있으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겪는다. 더욱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보를 제시할지라도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들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좀 더 신중하게 정보를 수용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 확립이 무척 중요하다.

**이기심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다.**

- 오스카 와일드 (1854~1900) : 아일랜드 시인, 소설가, 평론가